부평 청천동 달팽이 어린이 도서관

# 지역 주민 마음모아 꿈 키우는 공간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 상가건물에 위치한 달팽이 어린이도서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왁자하게 모여 앉아있다. 손에 흙반죽을 조물거리는 아이들이 연신 선생님이며 친구들을 쳐다보면서 이리저리 모양을 빚어댄다. 아침 10시 30분부터 시작된 '달팽이 겨울방학교실' 도자기 수업시간이다.

2004년 개관했으니 올해로 4년째가 되는 달팽이 어린이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나눔을 지향하는 도서관이다. 청천(淸川)이라는 지명처럼 맑은 내가 흐르던 이 지역은 부평의 대표적인 공업지역 중 하나다.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는 늘어났고, 산 밑자락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많아졌다. 마땅한 공공시설이 없는 지역이라 아이들이며 젊은 엄마들은 차를 타고 나서지 않으면 다닐 곳이 없다. 인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던 지역 모임 주부들은 좀더 적극적인 지역활동에 고민하던 중 주민들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뜻있는 사람들이 공동출자로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을 맡아 '달팽이 어린이 도서관'이 탄생했다.

"동네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공동 교육공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시락 배달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관에 의탁하고 청천사랑청년회, 여성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추진하게 됐죠."

부윤희(38) 관장은 '사랑의 도시락' 배달 활동에 참여했던 지역회 회원이었다. 자금을 마련한 후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가장 우선순위인 장소 물색에 정신이 없었다. 임대료도 문제였지만 아이들이 드나들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소 사용을 거절하는 곳도 많았다. 넓지는 않지만 인근에서 꽤 사람들이 몰리는 상가건물 4층에 열 댓평 남짓한 아담한 장소 마련하고 집에 있던 책을 들여놓고 소박하게 문을 열었다.

달팽이 어린이도서관에서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것은 여름, 겨울 방학에 열리는 방학 프로그램이다. 여름에는 인근의 산과 강으로 생태교실을 떠나고 겨울에는 도서관에서 일주일간 전통문화교실을 연다. 학교나 학원에서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어서 아이들과 엄마들의 참여율이 높다.

"학기 중에는 책가방 없는 날을 이용해 들꽃기행, 생태 기행, 박물관 기행을 해요. 우리 도서관 아이들끼리 가기도 하고 인천 지역 작은 도서관끼리 연합해서 다녀오기도 하죠."

열 다섯명으로 구성된 도우미 엄마들도 참여율이 높다. 처음에는 도서관 정리부터 시작했던 엄마들도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

치기도 한다. 달팽이 도서관은 앞으로 자원봉사 어머니들에게 참여봉사 분야를 직업화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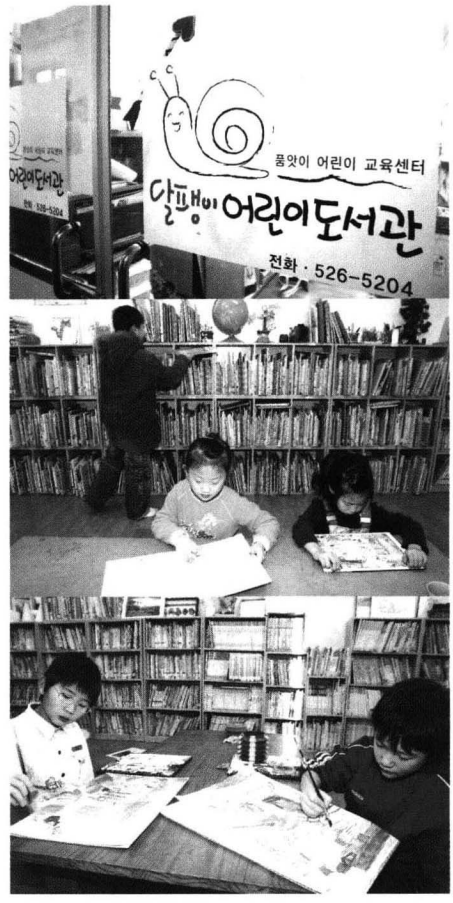
"어린이 뿐 아니라 엄마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아이들 때문에 왔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분야를 찾아 가능성을 키워 보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엄마들의 개인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전달하는 어머니 교사로 출발해서 더 넓게는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나아가서 전문직 여성으로 생활에 보탬을 주는 그런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하고 싶어요."

부윤희 관장도 마찬가지다. 올 3월에 있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도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다 더 잘 이끌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관장으로 도서관을 섬기고 있지만 제 스스로도 공부의 필요성과 의욕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복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정기적인 도서관 준비모임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달팽이 어린이도서관은 청소년들은 물론 앞으로는 아빠들간의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내부 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연중 계획에 포함된다.

"공간 문제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도서관 상시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해요. 북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니 영유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겠죠. 도서관 문화가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이 모두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부윤희 달팽이어린이도서관장**

##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어린이도서관 되길 소망

정신없이 드나드는 아이들 챙기랴 어질러져 있는 책을 서가에 정리하랴 외부 방문객 접대와 문의전화 응대까지. 부윤희 관장은 하루종일 쉴 틈이 없다.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험으로 제 자신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지역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구요. 달팽이처럼 꾸준히 달려가는 중이죠."

부 관장이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동네 도우미 어머니들은 도서관이 생기기 이전부터 청천동 독거노인들을 위해 함께 도시락을 배달하던 끈끈한 동지이다. 개관한 지 벌써 햇수로 4년째가 됐으니 도서관 꾸리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숙련된 '어머니 사서'들이다.

지역을 위해 태어난 공간이니만큼 도서관을 위하는 부 관장과 도우미 어머니들의 마음은 남다르다. 엄마가 시켜서 왔다가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 스스럼없이 찾아오는 아이들을 볼때 가장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부 관장은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많다.

"고학년 아이들은 집안이 힘들어도 학원을 보내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공부방이 아니어서 여러 기관에서 보조해주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도서관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나눔 장터나 체육대회, 영화제를 개최해서 주민들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기존의 프로그램도 잘 살리고 올해는 산과 공원, 주변 환경을 이용해 청소년 생태지킴이 활동도 펼칠 예정이예요.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라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죠."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더딘 걸음이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어린이도서관의 행보를 따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늘어간다.